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한국구술인물사⑩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청년불자 활동의 기반이었던 불교학생회



“철공소 나가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니  
가 저는 근대 이상하게 기계 일하는 데 이  
런 데 가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더라  
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하기 싫었지만은 공  
부 안 하면은 대학, 공장에 나가서 일하라

고 하나까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했던 기  
역이 나요.”  
전재성은 철공소 일이 싫어 고등학교 3  
학년 때 버락치기로 공부하였으며, 서울  
대 농대 농화학과에 입학했다고 고백하  
였다. 농촌에 가서 좀 한가롭게 살아보려  
는 생각에서 농대를 택했다고 한다. 그러  
나 화상을 입은 부분이 넓어서 목욕탕도  
제대로 못가고 수영장이나 다른 사람들  
하고 숙박하는 모임에는 가지 못했다고  
구술한다.  
그 당시 서울대에는 불교 동아리인 법불  
회 즉 법학과 불교학생회가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었으며 문리대 불교학생회도 생  
기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재성은 수  
원에 위치한 서울대 농대를 중심으로 불교  
학생회를 조직했다. 지도교수가 있어야 동  
아리 등록이 가능했으므로, 당시 유명했던  
유달영 박사를 찾았다.  
“원래 쪽이지만은 철학이라든가, 윤리  
라든가 뭐 이런 모든 뭐 사상 분야에서 유  
달영 박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

으로 꼽혔지요. 유달영 박사가 그 분을 찾  
아갔더니만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  
더라고요. 부인은 아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쪽이었을 텐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불교가 훌륭한 종교인데...”  
그 때 유달영 박사가 불교학생회 지도  
교수로서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처음  
으로 서울대에 불교학생회를 결성했다  
고 증언한다. 함께 불교를 공부할 학생들  
을 모집했고, 당시 꽤 많은 90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다. 그들은 서울대 수원캠퍼  
스에서 가까운 팔달산 밑 대승원 사찰에  
서 첫 법회를 시작했다. 선배들도 많았지  
만 농대불교학생회를 조직한 전재성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모두 동의하였다.  
그는 당시 꽤 열심히 불교 활동을 했다고  
되돌아본다.  
“문리대에서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서  
울대 전체에 수련대회 같은 거를 방학 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문리대라든가 법대 법불회, 다 알  
게 되고 그래서 인제 그 총불회가 발족을

하게 됐죠. 그 때 아마 총불회가 발족을 할  
때에 지금 건국대 성태영 교수가 아마 총  
불회 회장을 했던 거 같아요.”  
서울대 각 단과대학별로 불교학생회가  
조직되었고, 또한 서울대 전체 불교학생  
회 의 기구인 총불회가 탄생한 것이다. 전재  
성은 농대불교학생회장 자격으로 자연스  
럽게 총불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즉 대불련과도 인연을 맺게 된  
다. 당시 대불련 회장은 12년차 중앙대 운  
세원이었고, 전재성은 이 때 총무부장을  
맡았다.  
서울대 총불회 활동은 물론 대불련에  
서도 활동을 넓혀갔다. 당시 서울대 총  
불회는 송광사 여름 수련대회를 개최했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김창일(現 민주  
당 국회의원) 선배도 만났다. 자연스럽게  
시국토론회로 이어졌고 전재성 역시 유  
신독재에 항거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동  
승하게 된다. 이 때 전재성은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한 의식화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한다.

###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㉔ 감은사지

## 동해의 용이 돼 나라를 수호하다



경주의 감은사지

통일신라 불교를 이야기하기 위해  
선 문무왕(文武王)을 알아야 한다. 그  
는 신라 통일을 완성한 것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문무왕  
의 정신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감은사지다. <삼국유사> '만파식적'  
조의 주(註)로 인용된 감은사 사중기  
(寺中記)에는 문무왕이 왜병 진압을

的) 치적이 아님은 아니나,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을 찾으  
라...”  
경주를 지나 동쪽 추령고개를 넘으  
면 동해구(東海口)가 있다. 동해구는  
동해의 입이란 뜻으로, 신라 당시에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삼국사기> 문무  
왕조에는 “문무왕이 동해구(東海口)의  
대석 위에 장사를 지냈으며 속전(俗  
傳)에는 용이 용으로 변했다”는 기록  
이 있다.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감은  
사는 현재 쌍탑과 건물의 흔적만 남아  
있다. 감은사지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탑과 건물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  
적이다. 미륵사지탑과 정림사지탑으로  
대표되는 백제계 석탑과 분황사탑으로  
대표되는 신라계 석탑은 삼국통일을  
맞아 한국 석탑의 정형 양식을 낳았다.  
감은사지 동서 석탑에서 시작된 쌍탑  
양식은 우리나라 석탑의 전통을 이뤘  
다. 이것이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사  
찰 구조인 '1금당 2탑'의 양식이다. 후  
대에 조성된 석가탑의 모양은 날씬하

### 경주 감은사지는 문무왕의 정신 담긴 곳 고유섭 선생 “경주가거든 대왕암 찾으라”

위해 이 절을 창건했는데 끝내지 못  
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됐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요 2년(開闢,  
682년) 공사를 끝냈다. 금당 밑 섬돌  
을 파고 동쪽으로 향하는 구멍 하나  
를 냈는데(金堂下東向開一穴)이 구  
멍으로 용(문무왕)이 금당으로 들어  
와 돌아다니게 했다. 왕이 내린 유언  
으로 뼈를 장사지낸 곳을 대왕암(大  
王巖)이라 했고, 절의 이름을 감은사  
라 했다.”  
일찍이 한국미술사의 대가였던 우현  
(又玄) 고유섭(1905-1944) 선생은 이  
렇게 노래했다.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偉蹟)  
을 찾으라. 건천(乾川)의 부산성(富山  
城)도, 남산(南山)의 신성(新城)도, 안강  
(安康)의 북형산성(北兄山城)도 모두  
문무왕의 국방적 경역이요, 봉황대(鳳  
凰臺)의 고대(高臺)도, 임해전(臨海殿)  
의 안압지(雁鴨池)도, 사천왕의 호국찰  
(護國刹)도 모두 문무왕의 정적(政經

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감은  
사지 삼층석탑은 약간의 육중한 느낌  
이 든다.  
1959년 감은사지를 발굴하던 발굴단  
은 특이한 유구를 발굴한다. 바로 석상  
(石床, 돌 덮개)이다. 늘어선 돌 덮개들  
과 흙바닥 사이에 높이 60cm 정도의 지  
하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감은사 터 금  
당 밑에 마련된 이 지하공간은 문무왕  
이 국가 안위를 걱정하며 출몰했던 곳  
이다. 문무왕은 평소 지의법사(智義法  
師)에게 “내가 죽으면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용이 돼 불멸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불멸  
을 통해 국가를  
새롭게 하려던  
문무왕의 흔적  
에서 우리는 신  
라인들의 신앙  
의 일면을 찾을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⑩

## 한 생각 비우고 생생한 정신으로 열심히 살라

경봉 스님이 밀양 무봉사(舞鳳寺)에서  
지내실 적의 이야기이다. 스님은 극락암에  
주석할 때 한 청년 얘기를 법문 중에 자주  
했다.  
하루는 청년 신도가 경봉 스님에게 다가  
와 빛을 내 산 시계를 자랑하고 기분 좋아  
했다. 당시만 해도 시계가 흔할 때가 아니  
었다. 며칠 뒤 청년은 시계를 잃어버려 얼  
굴이 오이꽃처럼 아위어서 찾아왔다.  
“자네 부모님 태중에서 시계를 가져왔  
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경봉 스님은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이  
야기를 청년에게 들려줬다. 물질에 집착하  
지 말라는 그 얘기인즉 이리했다.  
옛날 경주에 정만서(鄭萬瑞)라는 사람  
이 살았다. 어느 날 한양으로 가다가 노젓  
돈이 떨어져 이틀이나 굶게 되었다. 정만  
서는 허기에 지쳐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  
막 기둥에는 삶은 소 낭신이 걸려 있어 군  
침이 돌았다.  
정만서는 낭신을 찢어 달라고 하여 술안  
주 삼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돈 한 푼이

없으니 술 먹으려 손님이 자주 들어오는  
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정만서를  
지켜보고 있던 주모가 참다못해 쫓아와 말  
했다.  
“여보시오. 다른 손님들도 술 마시게 자  
리를 비켜주고 계산을 하시지요” 했더니  
정만서의 말이 “주모, 암소 잡은 요량하  
소”하는 것이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암소 잡은 요량’ 하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주모의 소리가 커지자 뒷방에 누워 있던  
남편이 나왔다. 사내는 혀를 끌끌 차며 중  
얼거렸다.  
“세상에 술장사 30년에 저런 늙은 처음  
보겠네.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만서는 사내를 보자 인사를 나  
누자며 손을 내밀었다. 사내가 정만서를  
모를 리 없었다.  
사내가 고기 값은 낮두고 소리나 한번  
해보라 했다. 정만서는 온갖 장기자랑을  
다해가며 춤도 추고 소리도 했다. 그러자  
지나가는 손님들이 주막으로 하나 둘 모여  
들었고, 덕분에 주막의 술도 금세 동이 나  
버렸다.  
며칠 뒤 무봉사를 다시 찾은 청년은 경  
봉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며 말했다.  
“스님의 말씀가운데 태어날 때 빈손으  
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야기는 속이  
시원하지 않더니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얘  
기에는 한 생각 마쳤던 것이 쑥 내려갔습  
니다.”  
“다행이다. 사람과 물질에 걸려서 가슴  
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거든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말을 생각하라. 그러면 한 생  
각 마쳤던 것이 풀릴 것이다. 한 생각 비우  
고 생생한 산 정신으로 일하면 절후(絶後)  
에 갱생(更生)이라, 풀어진 곳에서 다시 사  
는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바탕 멋지게 해야 한  
다. 그까짓 것 근심 걱정은 뻘새나고 죽은  
마음이다. 앞으로는 산 정신으로 부처님  
정신으로 살아가라.”  
경봉 스님의 ‘암소 잡은 요량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다시 기운을 찾았  
다. 훗날 무봉사에서 극락암으로 돌아오신  
경봉 스님은 법문 때마다 가끔 ‘암소 잡은  
요량하라’는 이야기를 말했다.  
사회에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  
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물질 아니면 사  
람으로 인한 걱정들이다. 부모 태중에서  
나올 때 마누라를 안고 나왔나. 남편을  
업고 나왔나. 빈 몸 빈 손으로 나왔으니,  
한 생각 비우고 시집, 장가가지 않을 요  
량하면 맘이 편하  
다. 이와 같이 경봉  
스님은 신도들에게  
좋은 법문을 해 주  
시며 힘든 삶에 등  
불이 되었던 선지  
식이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및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사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가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함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13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6월 30일(목)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리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시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시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파동이 아니고, 사주의 용신을 보완하고 공명과 태과한 오해를 피하며 남감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명령서 작성](#) [www.goodname114.com](#)